

<2009년 6월 2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온전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온전하다.
- (해석) 말썽 부리는 자는 어디를 가도 말썽이다.
2. 사람은 물과 같다. 깨끗한 물을 바로 먹지 않으면 오염된다.
- (해석) 빨리 전도하여라.
3. 옛것을 모두 장사 지내야 주를 맞는다.

<2009년 6월 30일 화요일 새벽잠언>

1.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취해야 생명길로 가면서 영이 형통한다.
2. 주님 앞에 가능성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도우신다. 살 가능성이 없는 과일 나무는 주인이 퇴비하지 않는다. 주님도 그러하시다.
3. 주님은 지금 양인지, 염소인지,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보시면서 성령의 불세례와 은혜를 주신다.

<2009년 7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육성이 살면 영이 죽는다. 육성이 죽어야 영이 산다.
2. 자기를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자기 행한 것을 옳고 그른 것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제야 제 갈 길을 바로 가게 된다.
3.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을 시인한다.
- (해석)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지적하셨다.

<2009년 7월 2일 목요일 새벽잠언>

1. 자기가 죄인인지, 미련한지, 의로운지, 잘못했는지 확실히 시인해야 그 행위에 따라 바로 깨닫고 가게 된다.
2. 자기 죄를 시인치 않는 자는 회개치 않는다. 회개치

않으면 죄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해석) 시인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고, 마귀와 가까워진다. 섭리 사람 중에 이런 자들이 많다. 나쁜 자들이다.
3.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은 시인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시인을 거부한다. 자기 위신과 체면을 세우려고 죄스러운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는 부르지 않으신다.

<2009년 7월 3일 금요일 새벽잠언>

1. 주님은 숟가락을 드셨으니, 우리는 젓가락을 들고 따라가서 심정 맞추어 일해야 된다.
 2. 주님은 바늘을 들고 가셨으니, 우리는 실을 들고 바짝 따라가서 그때그때 주님을 맞춰 일해야 된다.
- 1, 2번 잠언 - (해석) 척척 알고 행하라는 말이다.
3. 마음을 닦지 않은 자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바로 지치고 거부하게 된다.
- (해석) 그래서 좋은 환경에 살아도 금방 싫증나고, 아름다운 자와 살아도 금방 싫증나고, 좋은 말씀을 들어도 금방 싫증나서 돌아선다. 마음을 닦아야 한다.

<2009년 7월 4일 토요일 새벽잠언>

1. 악에서 의인이 분립되어 나온 후에야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다. 악과 계속 같이 있으면 심판 날에 악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된다.
- (해석) 악만 멸하게 해 달라 하지 말고 악에서 나와라. 그래야 악을 멸한다.
2. 주인이 쓰지도 않으면서 필요 없이 잡초를 베지 않듯이, 하나님은 필요 없이 사탄만 멸하지 않으시고, 필요 없이 악인만 멸하지 않는다. 하늘에 속한 자들을 쓰실 때 잡초도 없애 주시고, 행악자도 쫓아내 주시고 심판하신다.
하늘에 속한 자가 하기에 따라 해 주신다. 하늘에 속

한 주님을 믿는 자들이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마귀를 멀해 달라고 하고, 행악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만 하면 안 해 주신다.

하늘 편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행하는데, 사
탄과 행악자들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든지, 하나님
과 주님이 하늘 편 사람들을 쓰실 때 지장이 있으면
악을 제거해 주신다.

3.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그 장소를 쓸 때 그곳의 잡초도
베어 주고, 독뱀들도 잡아 주고, 썸도 파 주는 것이
다. 주님도 그러하시다.